

전라남도 코로나19 주간소식 특집8호

17

주차

(2020.04.20.~2020.04.26.)

발행일 2020. 04. 28.(화)

발행처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목차 —

- I. 코로나19 발생 현황 II. 코로나19 대응 현황 III. 해외 발생 현황 IV. 주간 정책동향 V. 팩트체크 VI. 코로나19 칼럼

I. 코로나19 발생 현황 (4월 27일 0시 기준)

현황표

- (전국) 확진환자 총 10,738명 중 완치자는 8,764명으로 지난주 대비 650명 증가, 사망자는 243명으로 확인됨
- (전남) 확진환자 총 15명으로 지난주와 동일, 559명의 접촉자 중 535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24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 (광주) 확진환자 총 30명으로 지난주와 동일, 1,216명의 접촉자 중 1,209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7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단위: 명(전주대비)

구분	확진환자 현황				접촉자 현황			검사현황		
	치료중	완치	사망	합계	격리중	격리해제	합계	검사중	결과음성	합계
전국	1,731 (-593)	8,764 (+650)	243 (+7)	10,738 (+64)	-	-	-	8,895 (-3,086)	582,027 (+41,647)	590,922 (+38,561)
전남	6 (-1)	9 (+1)	0 (+0)	15 (+0)	24 (-5)	535 (+22)	559 (+17)	150 (-364)	12,411 (+1,408)	12,561 (+1,044)
광주	5 (-3)	25 (+3)	0 (+0)	30 (+0)	7 (+0)	1,209 (+0)	1,216 (+0)	11 (-11)	12,633 (+1,175)	12,644 (+1,164)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검역
확진환자	629	137	6,847	92	30	40	43	46	436
(%)	(5.86)	(1.28)	(63.76)	(0.86)	(0.28)	(0.37)	(0.40)	(0.43)	(4.06)
10만명당 발생률	6.46	4.02	281.02	3.11	2.06	2.71	3.75	13.44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진환자	671	53	45	142	18	15	1,364	117	13
(%)	(6.25)	(0.49)	(0.42)	(1.32)	(0.17)	(0.14)	(12.70)	(1.09)	(0.12)
10만명당 발생률	5.06	3.44	2.81	6.69	0.99	0.80	51.23	3.48	1.94

감염경로

단위: 명(%)

구분	합계	해외유입	집단사례					개별사례 또는 조사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병	확진환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련	소계	
전국	10,738	1,044 (9.7%)	5,212 (48.5%)	2,046 (19.1%)	1,252 (11.7%)	157 (1.5%)	8,667 (80.7%)	1,027 (9.6%)
전남	15	7 (46.7%)	1 (6.7%)	3 (20.0%)	2 (13.3%)	1 (6.7%)	7 (46.7%)	1 (6.7%)
광주	30	14 (46.7%)	9 (30.0%)	0 (0.0%)	1 (3.3%)	6 (20.0%)	16 (53.3%)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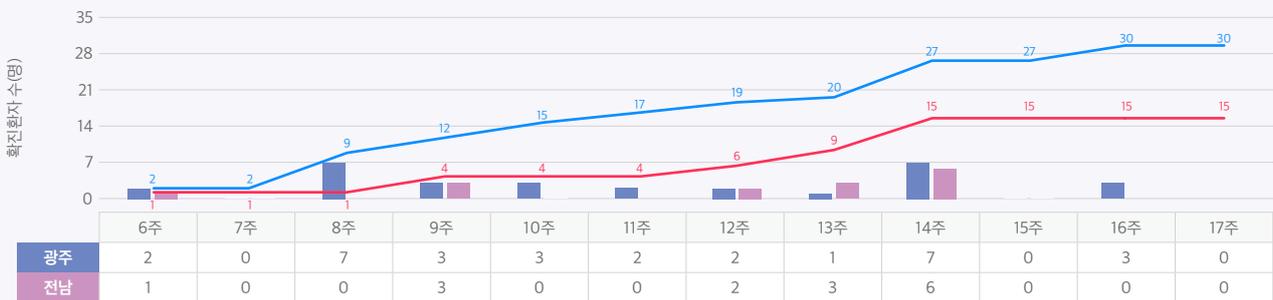
확진환자 발행 현황

- (전국) 17주차 신규 확진자 연일 10명 내외로 발생
- (전남) 누적 확진자수는 15명으로, 3주간 신규 확진환자 발생 없음
- (광주) 누적 확진자수는 30명으로, 17주차 신규 확진환자 발생 없음

■ 전국 (주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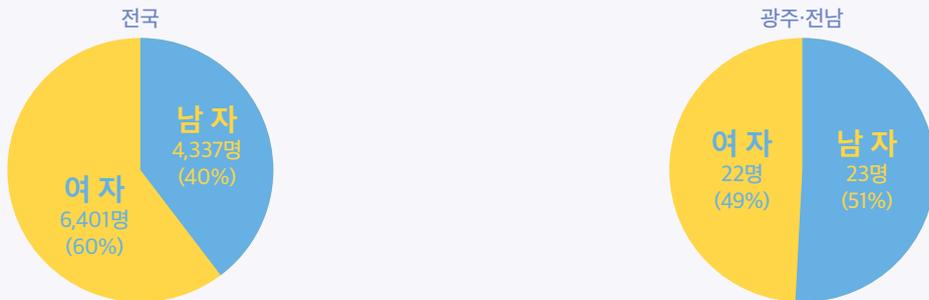
■ 광주·전남 (주별, 누적)



성별, 연령별 분포

- (전국)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광주·전남)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성별



■ 연령별



치명률

- 국내 확진환자 10,738명 중 사망자는 243명으로 치명률 2.3%
- 현재 기준 광주·전남 사망자 없음

II. 코로나19 대응 현황 (4월 27일 기준)

선별 진료소

· 지정현황

합계	전남 시·군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76	23	14	39

- Drive-Thru 설치 시·군: 목포, 여수, 광양, 구례,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무안병원, 함평, 영광, 완도, 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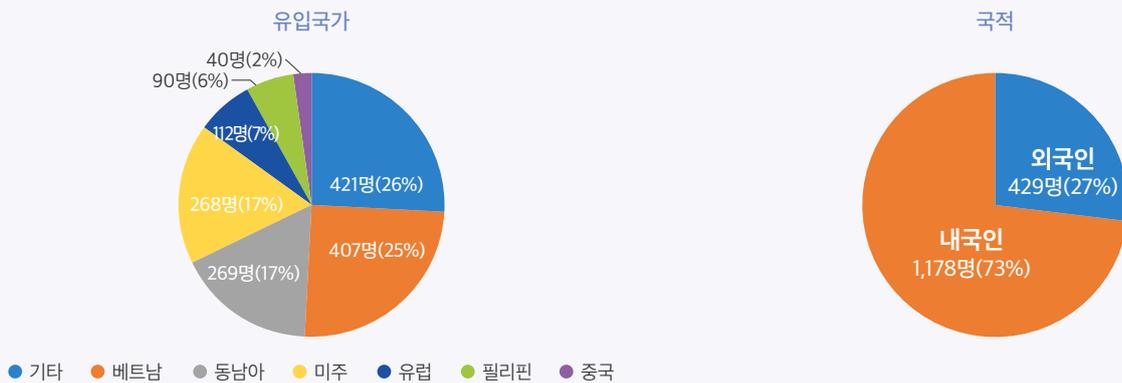
· 운영현황

구분	진료			검체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건수 (전주대비)	12,466 (+830)	3,342 (+62)	16,729 (+1,148)	7,069 (+702)	1,206 (+56)	4,184 (+288)

입시검사시설

· 전라남도 해외 입국자 입소현황

- 4월 1일~26일 총 1,607명 입소, 1,582명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국민안심병원

· 지정현황

유형	시·군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예정)일자
A (7개)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061-862-8300	2020.02.25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061-690-6000	2020.03.02
	여수시	여수한국병원	061-653-2000	2020.03.03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061-689-8114	2020.03.04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2020.03.05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061-640-7575	2020.03.10
	목포시	목포현대병원	061-272-7588	2020.03.26
B (7개)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2020.02.26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061-740-5000	2020.02.26
	순천시	성가톨릭병원	061-720-6434	2020.02.27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061-280-3000	2020.02.28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061-270-5500	2020.02.29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061-835-6000	2020.03.04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061-840-1200	2020.03.16	

- 유형 A: 호흡기전용 외래 진료소 분리 운영 병원

- 유형 B: 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병원

III. 해외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4월 26일))

전세계 발생 현황

- 전세계 확진환자 총 2,804,796명, 사망 193,710명(사망률 6.9%)
 - (유럽) 1,341,851명 발생, 122,218명 사망(사망률 9.0%)
 - (아메리카) 1,094,846명 발생, 56,063명 사망(사망률 5.2%)
 - (중동) 160,586명 발생, 6,887명 사망(사망률 4.3%)
 - (서태평양) 142,639명 발생, 5,943명 사망(사망률 4.2%)
 - (동남아시아) 43,846명 발생, 1,747명 사망(사망률 4.0%)
 - (아프리카) 20,316명 발생, 839명 사망(사망률 4.1%)

· 발생 상위 20개국

단위: 명

순위	국가 및 지역	확진환자(전주대비)*	사망자(전주대비)*	사망률(%)
1	미국	899,281 (+203,928)	46,204 (+13,777)	5.1
2	스페인	219,764 (+28,038)	22,524 (+2,481)	10.2
3	이탈리아	195,351 (+19,426)	26,384 (+3,157)	13.5
4	독일	154,175 (+14,278)	5,640 (+1,346)	3.7
5	영국	148,381 (+34,160)	20,319 (+4,855)	13.7
6	프랑스	122,875 (+12,154)	22,580 (+3,286)	18.4
7	터키	107,773 (+25,444)	2,706 (+816)	2.5
8	이란	89,328 (+8,460)	5,650 (+619)	6.3
9	중국	84,338 (+137)	4,642 (-)	5.5
10	러시아	74,588 (+31,735)	681 (+320)	0.9
11	브라질	52,995 (+1,9313)	3,670 (+1,529)	6.9
12	벨기에	45,325 (+8,142)	6,917 (+1,464)	15.3
13	캐나다	44,353 (+1,1953)	2,350 (+1,004)	5.3
14	네덜란드	37,190 (+5,601)	4,409 (+808)	11.9
15	스위스	28,978 (+1,656)	1,336 (+226)	4.6
16	인도	26,496 (+10,784)	824 (+317)	3.1
17	포르투갈	23,392 (+3,707)	880 (+193)	3.8
18	에콰도르	22,719 (+13,697)	576 (+120)	2.5
19	페루	21,648 (+8,159)	634 (+334)	2.9
20	아일랜드	18,561 (+3,803)	1,063 (+492)	5.7
...				
30	한국	10,728 (+67)	242(+8)	2.3

*확진환자 및 사망자 괄호 안의 숫자는 전주 대비 증감(4월 12일~4월 18일)

- (미국)
 - 전주 대비 확진자 203,928명 증가, 사망률 0.4%p 증가(4.7%→5.1%)
 - 코로나19 환자 100만명 근접, 전 세계 사망자 4분의 1은 미국인
- (스페인)
 - 전주 대비 확진자 28,038명 증가, 사망률 0.3%p 감소(10.5%→10.2%)
 - 14살 이하 어린이에 하루 1시간 야외활동 허용
- (이탈리아)
 - 전주 대비 확진자 19,426명 증가, 사망률 0.3%p 증가(13.2%→13.5%)
 - 이탈리아 요양원, 4월 한 달 신규 확진의 44% 차지
- (독일)
 - 전주 대비 확진자 14,278명 증가, 사망률 0.6%p 증가(3.1%→3.7%)
- (영국)
 - 전주 대비 확진자 34,160명 증가, 사망률 0.2%p 증가(13.5%→13.7%)

IV. 주간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 외교부, 전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 되는 등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해 여행경보제도* 중 적색경보 발령
 - (기간) 1개월 연장, 5월 23일까지(추가적인 연장조치 없는 경우, 자동해제)
 - (적색경보)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 철수권고 및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 *여행경보제도: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 안내하는 제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공동체 수칙 발표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 준비
- 집단방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발열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정부, 공적 마스크 구매량 1인당 3매로 확대

-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며,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1인당 공적마스크 3매로 확대 시행(4월27일)
- 해외반출의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정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금 지급
- (내용)
 - 총 286만 명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보완, 고용유지 및 피해 업종별 고강도 지원
 - 재직자 고용유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코로나19 전담병원 일부, 병상 운영 조정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안 중 하나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간 균형, 환자추이에 따른 탄력적 병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감축 및 조정 추진(4월23일)
- (대상) 76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500여 병상
- (내용)
 - 확진 환자 추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적정 병상 수 적용(유지)
 - 단계별 구분: 일일 확진 환자, 1단계 환자 50명 이하, 2단계 50명 이상, 3단계 100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상
 -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중심으로 우선 실시, 지역별로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 수립 후 추가 감축 추진

· 정부, 모든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소득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4월 24일)
-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통과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전국민에게 지급 예정(5월 중)

· 정부,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적용

- 일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일탈행위가 국민의 불안감 조성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보조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전자손목 밴드 착용 추진(4월27일)
- (대상)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TF 구성

-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마련하기 위해 실·국별 연구기관·전문가 등을 포함한 TF 구성 및 활동 추진
- (구성) 실국별 연구기관, 전문가, 분과별 정책자문위원 등
- (계획)
 -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바이오산업 등 분야별 코로나19 피해상황 분석 및 대응 방안 추진
 - 각 분야 통계·연구기관 분석자료 등을 참고해 피해 상황 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 전남소방본부, 119재난심리지원단 구성

-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격리대상자의 심리적 불안,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서비스 지원
- (구성) 소방서에 배치·운영 중인 전문심리상담사 15명
- (대상)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 (역할)
 - 119로 전화하면 관할소방서에 배치된 심리상담사가 방문 또는 전화상담 지원
 -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 연계

·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마스크 추가지원

- 공격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되고는 있지만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4월22일)
-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재활병원·의료기관 종사자 등
- (지원) 중국 의료용 마스크 10만장과 중국협약도시 연청에서 기증한 마스크 1만장 등 11만장

·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꾸러미' 지원

-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월 이후 등교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꾸러미 지원
- (대상) 105개 학교(초등 61곳, 중등 40곳, 특수 4곳)
- (지원)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로 하는 물품 파악한 뒤,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과 쌀·라면·화장지·방역물품 등 전달

V. 팩트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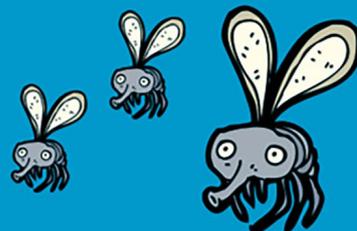
현재까지 COVID-19가 모기에 의해 전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나 증거는 없습니다.

COVID-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비말이나 코에서 분비되는 타액을 통해 퍼지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 기반 손세정제와 비누로 손으로 자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진실:
COVID-19는 모기를 통해 전염될 수 없다.



#Coronavirus #COVID19

9 March 2020

코로나19와 해외 입국자 관리



광주광역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민간전문지원단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최진수

유감스럽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래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20만 명에 육박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독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팬데믹이다. 유럽을 휩쓴 유행은 이제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등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적 유행을 보인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행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높고 중증도도 높은 편이다. 유행 초기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전염력이 강하면 증상은 가볍다는 교과서적 상식에 따라 전파방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의료봉괴가 일어나고서야 뒤늦게 통행을 차단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때늦은 조치를 취하느라 난리다. 집단면역으로 유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크다. 더 좋지 않은 소식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은 잘 생기지 않고 면역이 생겨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문제가 되듯이 치료가 끝난 사람들이 다시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다거나 잠복기 격리 이후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는 다른 특성이 너무 많다. 올 가을이나 내년에 반드시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유행병이다. 결국 전파를 차단하여 환자의 폭발을 막는 것이 지금까지는 최선의, 아니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 우리나라는 유행 초기부터 질병관리 본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추적. 검사. 격리라는 전파 차단 정책을 시행하여 초기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인한 폭발적 유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방역모델국가로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만여 명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국내 확진자가 발생 12주 만에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반대로 해외유입 확진자는 증가하여 최근 2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수는 3월 둘째 주 18명에서 넷째 주 327명으로 3주 만에 18배 넘게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총 157명이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코로나19사태 해결의 중심은 해외입국자 관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유럽·미국발 입국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인 무증상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가 유럽과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 전수 검사로 검역을 강화했다. 국내에서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 사례 중 유럽·미국발 입국자 비율이 최근 늘고 있는 점과 해당 국가 내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방역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발생이 감소하지 않자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을 실시하였다. 국내에 연고지가 있는 장기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증상자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와 동시에 입국 후 3일 안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입소하여 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전남에서 발생한 환자 15명 중 7명(46.6%)이 해외유입 확진자이다. 전남은 정부의 대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응을 선택했다. 전라남도예 거주지를 두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외입국자는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 광명역을 거쳐 임시검사시설까지 이동하는 곳곳에서 전라남도에서 파견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세 군데의 임시검사시설에 2~3일 동안 머무르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 양성일 경우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라남도의 꼼꼼한 검역 체계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했을 때 단 한 번의 진단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부와 동일한 대응으로 유럽·미국발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입소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남의 대응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도 격리해제 하루 전인 입국 후 13일째 되는 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격리해제를 진행하여 광주 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실례로 최초 시행한 검사결과 음성이었다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받은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례가 여럿 있었다.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광주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대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도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봉쇄전략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자칫 외국인 혐오증이나 귀국자들에 대한 기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같이 해외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의 입국자 관리는 부득이한 임시조치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 등 국내 전파 차단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